

JOURNAL OF HUMANITIES

人文論叢

79권 2호 2022년 5월

vol. 79, no. 2, May 202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인문논총 제79권 제2호(2022. 5. 31)

/

차례

기획논문	한국어 양상 표현과 가능세계		
	한국어 양상 범주의 형식의미론적 접근에 대하여	전영철	7
	가능세계의미론을 기반으로 한 동적 양상 범주 연구	백인영	39
	서법으로서의 명사형 어미에 대한 가능세계의미론적 접근	황현동	85
일반논문	근대성에 대한 대항으로서 신종교, 거기에 스며든 반지성주의 이돈화의 『신인철학』을 중심으로	이혜경	125
	『조선문단』의 미디어 전략과 문단 권력의 창출	배정상	155
	김기림 소설의 함복 방언 「철도연선」을 중심으로	정성훈	191
	계량적 방법을 통한 만주어 동사 어간과 어미의 결합 분포 연구 『삼역총해』(三譯總解)에 나타난 부동사 어미 ‘-me, -fi, -ci’를 중심으로	도정업·정성훈	221
	종리허(鍾理和)의 ‘조국’(祖國) 경험과 ‘대만성’(臺灣性) 인식	신민영	261
	시각의 창조적 모호성과 특정한 공간관의 형성 그리스 시각의 이중성으로부터 르네상스 원근법주의의 양가성까지	김보경	297

	괴테와 셸러의 문학적 협력 바이마르 고전주의의 기관지 『호렌』을 중심으로	조성희 327
	안익태 VI 1941년 10월 10일의 지휘 무대와 그 평가	김보국 361
	지식의 공유와 표현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 해외 디지털 인문학 연구 사례 검토	김지선·류인태 391
서평	문장은 무엇을 하는가 손유경(2021), 『삼투하는 문장들: 한국문학의 젠더 지도』, 소명출판, 468쪽	정우경 431
	러시아 제대로 보기 기 메탕(2022), 『루소포비아: 러시아 혐오의 국제 정치와 서구의 위선』, 가을의 아침, 493쪽	류한수 443

Journal of Humanities
Vol. 79 No. 2, May 2022

/
Contents

Special Topic: Korean Modal Expressions and Possible Worlds

Formal Semantics Approach to the Category of Modality in Korean
Jun, Youngchul | 7

A Study on Dynamic Modality Based on Possible Worlds Semantics
Paik, Innyoung | 39

A Possible Worlds Semantic Approach to Nominal Endings as Mood
Hwang, Hyeondong | 85

Articles

‘New Religion’ and Anti-intellectualism as a Counter to Modernity
Centering on *New Human Philosophy*
Yi, Hye Gyung | 125

Media Strategy of *Joseon Mundan* and the Creation of Literary Circles’ Power
Bae, Jeong sang | 155

Hambuk Dialect in Kim Kirims Short Stories
Focusing on “Along a Railroad”
Jung, Seonghoon | 191

A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Manchu Verb Stems and Endings through
Quantitative Methods
Do, Jeongup and Jung, Sunghoon | 221

Zhong Li-he’s Experience of ‘Homeland’ and Perception of ‘Taiwanese’
Shin, Min Young | 261

The Creative Ambiguity of Vision and the Formation of a Specific Perspective of Space

From the Duality of Greek Vision to the Ambivalence of Renaissance Perspectivism

Kim, Bogyeong | 297

Literary Collaboration between Goethe and Schiller

Focusing on *Die Horen*, the Organ of Weimar Classicism

Cho, Seonghee | 327

A Study on Eak-tai Ahn (VI)

The Concert on the 10th of October, 1941 and Its Criticism

Kim, Bogook | 361

Sharing and Representation of Knowledge in Digital Humanities

Reviewing Overseas Digital Humanities Research Cases

Kim, Ji-sun and Ryu, Intae | 391

Book Reviews

What Do Sentences Perform?

Review of *Geography of Gender in Modern Korean Literature* by Son, Youkyung

Jeong, Wookyung | 431

Seeing Russia as It Is

Review of *Creating Russophobia: From the Great Religious Schism to Anti-Putin Hysteria* by Guy Mettan

Lyu, Hansu | 443

人文論叢

79권 2호

2022년 5월

기획 논문

기획의 말

/

한국어 양상 표현과 가능세계

자연언어의 양상(modality) 현상에는 인간의 인지 능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특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기술하는 1차원적 언어 사용을 넘어서, 어떤 명제에 대해 화자의 다양한 생각을 가미하는 언어 사용의 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복잡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 간 차이도 매우 큰 편입니다. 한국어의 관련 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무척 많이 있으나 매우 다른 시각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본 기획 연구는 의미 연구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 형식의미론(formal semantics)의 관점에서 한국어 양상 표현들이 실현하는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양상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기술주의적(descriptive) 관점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한국어의 양상 표현들을 살펴보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하여 그 장단점들을 효과적으로 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양상 연구는 매우 큰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분야이기에 매우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기술주의적 관점에서 연구되었지만 연구자들 간의 시각 차이가 커서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라는 양상의 정의를 받아들여 관련 현상들을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정의 자체가 모호한 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해석이 제각기 달랐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전통에서 벗어나서 관련 현상들에 대한 직관들을 다른 시각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어학의 최근 연구들에서 이러한 전통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 연구들은 전통적 견해들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양상의 설명을 위해 가능세계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양상 표현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실제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와 관련된다는 의견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기술주의의 비슷한 시각들을 가지고 논의되어 온 양상에 대한 연구가 더 폭넓은 시각에서 연구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기술주의적 양상 연구들 중에서 최근에 가능세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논의가 실제의 분석으로는 효과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형식의미론적 연구는 매우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형식의미론은 가능세계의 개념을 주요 요소들 중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연구 방법론이어서 양상 표현들의 가능세계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아주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양상 표현들의 종류로 인식 양상(epistemic modality), 당위 양상(deontic modality), 동적 양상(dynamic modality)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어떤 종류의 가능세계가 관여하는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여되는 가능세계들 중 얼마나 많은 가능세계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하는지도 양상적 의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식의미론적 연구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양상적 의미 특성을 매우 정연하게 포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형식의미론의 양상 연구는 양상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설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기술주의적 양상 연구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에서 양상 표현들의 의미를 파악하여 설명한다기보다는 단지 직관적 설명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방법론적 측면에서 명시적이지 않아서 어

면 체계를 추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형식의미론적 연구는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양상 현상에 대한 이론적 추구가 가능합니다. 형식의미론은, 가능세계적 요소가 논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결과인 양상 논리(modal logic)의 정신을 수용하고 있어서 논리학의 엄밀성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형식의미론적 연구는, 양상 논리의 방법론을 자연언어의 양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한국어의 양상 표현들의 체계를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데 매우 적절한 방법론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기획 연구는 한국어 양상 표현들에 대해 몇 가지의 구체적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한국어의 우언적 구성(periphrastic construction)의 양상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한다든지, 인식 양상이나 당위 양상에 비해 독립적인 양상 범주로 다루기 어려웠던 동적 양상의 존재를 확립한다든지, 한국어 명사형 어미 ‘-음’과 ‘-기’의 서법(mood)적 설명을 추구하는 등의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많이 다루어져 왔던 주제들이지만, 형식의미론적 혹은 가능세계의미론적 관점에서 이들을 연구함으로써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 보다 설명력 있는 결과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본 기획 연구를 이어 한국어 양상에 대한 형식의미론적 연구가 보다 활발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